

「書齋의 苑」을 내면서

관장 최 재 희

도서관은 많은 도서와 자료를 수집, 보관한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. 이런 도서관은 근대의 문명사회에 있어서 시민의 지적(知的)인 열락(悅樂), 정신적인 교양 및 조사 연구 등에 이바지하는 것이요, 그러므로 시민사회의 문화적 향상을 위해서 결(欠)할 수 없는 하나의 기본적 기관이다. 선진국의 선각자들이 서로 다투어 각종의 공·사립 도서관을 세웠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.

여러 도서관 중에서도 특히 대학교 도서관은 한 국가의 훌륭한 학자의 배출과 학술적 발전에 대한 근원적인 온상(溫床)이다. 이 근원적인 온상을 참으로 충실하게 함이 없이 대학교 학원의 정상화도 대망(待望)하기 어려울 것이다. 이 점을 도서관에 직접 종사하는 관원 일동은 물론이요, 도서관을 출입하는 여러 지성인(知性人)도 의식 함이 긴요한 일이다.

이런 처지에서 우리는 이때까지 “圖書館報”라고 했던 것을 이번에 개제(改題)하여 “書齋의 苑”이라고 한 동시에 도서관의 사명을 수행, 전달하는 데에 새로운 매개 기관이 되고져 하였다.

“書齋의 苑”은 책 향기 그윽한 뜰이라는 뜻이겠다. 이러한 기관지를 내는 동기에는 적어도 두가지를 들 수가 있다.

첫째로 그것은 도서관 업무에 종사하는 본관과 분관의 여러 관원에게 자기가 종사하는 직장의 뜻깊은 사명을 아는 동시에 실무에 애정을 가져서 자기 자신의 圖書館員다운 자질을 향상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져 한 것이다.

둘째로 그것은 교수와 학도를 「책 향기 그윽한 뜰」로 더욱 더 접근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에 친숙하게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있다.

간단히 말하면 “書齋의 苑”은 이를테면 자가(自家) 성원의 요구에 응할 뿐더러 그곳을 출입하는 분에 대해서도 좋은 길잡이가 되고져 한 것이다. 이 점을 독자 여러 분은 양찰(諒察)해 주기 바란다.

1968. 12